



보도시점 2024. 7. 12.(금) 배포 시 배포 2024. 7. 12.(금)

# 농식품부, 집중호우 피해농가 일손돕기 구슬땀

- 호우피해가 심한 충남지역에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일손돕기 추진 -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7월 12일(금)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업 피해가 심각한 충남 논산시에서 피해농가 일손돕기를 실시한다.

충남지역은 이번 집중호우(7.7.~7.10.)로 약 7천ha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고, 가축 221천여 마리가 폐사(잠정)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한 인력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.

농식품부 직원 40여명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시설하우스 딸기 재배 농가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, 피해 농업시설물과 작물 잔해 및 토사 제거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.

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“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히며, “피해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승한 (044-201-1251)
		담당자	서기관	최은철 (044-201-125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